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2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²	G D P	7,357억 달러 (2016년)
인구	78.97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9,317달러 (2016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대통령제 가미)	통화단위	리라(Turkish Lira)
대외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3.02 (2016년 평균)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7,89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으로 야권의 반대 및 반정부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쿠르드족 분리주의 반군(PKK)과의 무력충돌,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유입 및 테러발생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된 상태임.
- 독일이 터키 최대의 교역 국가이며,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41%(2015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대외무역에 있어 유럽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유로존 경제 악화에 따른 교역선 다변화 노력에 따라 중동·아프리카와의 교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5년 12월 유럽의 난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EU는 터키의 난민 수용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공식 재개하였으나, 군부 쿠데타('16.7월) 시도 이후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사형제도 재도입 논란, 과도한 언론 탄압 등으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16.11.24)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4.2	3.0	4.0	3.3	3.0
소비자물가상승률	7.5	8.9	7.7	8.4	8.2
재정수지 / GDP	-1.3	-0.9	-1.0	-1.9	-1.6

자료: IMF, EIU

□ 정정 불안 지속으로 경제성장세 둔화 지속 전망

- 터키는 2010~12년 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국내수요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2016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의 경제제재*, 군부 쿠데타 시도, 잇단 테러 발생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4.0%) 대비 하락한 3.3%로 추정됨.

* '15.11월 터키 공군이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한 사건에 따른 경제제재로, 터키의 농산물 수출, 관광업, 건설업 등에 악영향을 미침.

- 2016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군부 쿠데타 이후 숙청 정국 지속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관광수입 급감*, 투자심리 악화,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리라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전년(3.3%)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 터키의 2016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29.9% 이상 급감하였으며, 관련 업종(숙박업, 요식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유지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터키 정부의 세금인상(담배, 주류, 자동차 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7.7%) 대비 상승한 8.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리라/미 달러 환율(월말) : 2.43('15.1)→ 2.95('16.1)→ 3.77('17.1)

-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리라화 약세 지속, OPEC 감산 이행에 따른 유가 상승,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8%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내외 수준에서 관리

-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6%에 달하였으나, 2010년 터키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법제화 (GDP의 -1% 범위)한 이후 현재까지 -1%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추이: -0.6%(11) → -1.7%(12) → -1.3%(13) → -0.9%(14) → -1.0%(15)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IS 테러, 군부 쿠데타 시도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1.0%)에 비해 확대된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 재정정책 시행으로 2017년에는 -1.6%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 및 관광객 수 급감

- 터키는 국내 저축률이 낮아(16년 기준 13%)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변동성이 큰 해외자본으로 보전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 사회적 불안 고조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유출 확대 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군부 쿠데타 실패 이후 이슬람 극단 주의(IS) 및 쿠르드족(PKK) 무장 세력에 잇따른 테러 발생 등으로 2016년말 전년대비 30%(10.9백만 명) 감소하였으며, 2017년 중에도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변동에 취약

- 터키는 2011~15년 평균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부문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유가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가스 수입상대국(15년) : 러시아(55.3%), 이란(16.2%), 아제르바이잔(12.7%) 등
 석유 수입상대국(15년) : 이라크(45.6%), 이란(22.4%), 러시아(12.4%) 등

- 터키 정부는 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지열, 풍력, 수력, 태양광) 인프라 확충 및 원자력발전소 도입 노력 등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나, 앞으로도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임.

나. 성장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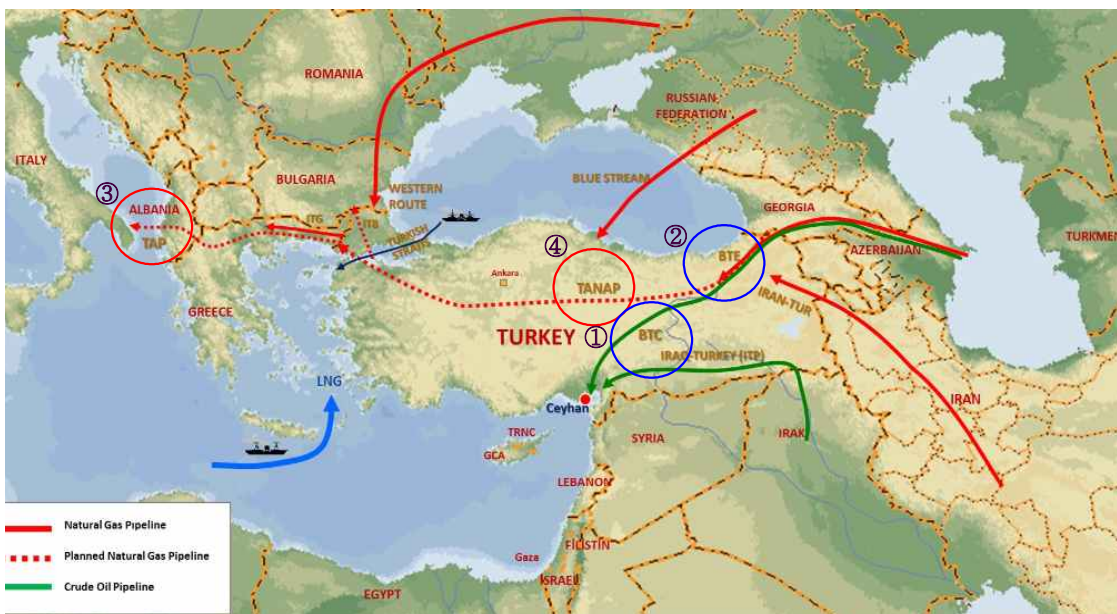
□ 지정학적 요충지, 풍부한 노동력 보유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 국가로 중동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유럽 국가 중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2016년 기준 79백만 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68%에 달하여 노동력이 풍부함.

□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송 허브 역할 기대

- 터키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 영토를 지나는 가스관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수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수송관으로는 ①Baku-Tbilisi-Ceyhan(BTC) 송유관과 ②Baku-Tbilisi-Erzurum(BTE) 천연가스관 등이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럽(이탈리아)까지 연결하는 ③ Trans Adriatic Pipeline(TAP) 프로젝트와 ④Trans Anatoilian Pipeline(TANAP) 프로젝트가 있음.

터키의 주요 송유관 및 천연가스관



<자료: 터키 외교부>

다. 정책성과

□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확대

- 터키 정부의 2017~19년 중기경영계획(Medium Term Program)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터키의 총 지출액은 민간 부문 보다 공공 부문의 대형 인프라 및 공공 에너지 사업 시행 등에 따라 공공 지출액이 전년대비 11.8%(민간 부문은 5% 증가)로 크게 증가함.
- 터키 정부는 향후 세출 우선순위를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경제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 등으로 설정하고, 신공항(이스탄불 등), 터널(유라시아 등), 병원 사업(가지안텡 등), 원전(시노프 등), 도로 건설,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을 민관합작투자사업(PPP)으로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음.

□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지속

- 정부는 민영화청(Turkish Privatization Administration)을 설립하여 정부 재원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85~2015년 중 민영화를 통해 66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함.
- 2013년 18개 국영 배전회사를 127억 달러에 매각하여 배전 민영화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교량, 부동산, 항구,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영화 작업을 현재까지 추진 중임.

3. 대외거래

□ 국제유가 상승 및 낮은 저축률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터키는 낮은 국내저축률 및 에너지 부문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형성하고 있음.
-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전년과 유사한 -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

- 터키 중앙은행(CBRT)의 자국통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2013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에 따르면 중동 및 동유럽 주요국 중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국가에 속함.

* 외환보유액(억 달러): 1,092('13) → 1,053('14) → 914('15) → 986('16)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63,608	-43,552	-32,241	-32,121	-43,135
경 상 수 지 / G D P	-7.7	-5.5	-4.5	-4.4	-5.6
상 품 수 지	-79,917	-63,597	-48,114	45,243	-43,612
수 출	161,789	168,926	151,970	142,995	135,972
수 입	241,706	232,523	200,084	188,238	179,584
외 환 보 유 액	109,249	105,343	91,426	98,615	93,182
총 외 채 잔 액	423,253	435,402	407,448	424,198	447,175
총 외 채 잔 액 / GDP	51.5	54.6	56.9	59.7	67.2
D. S. R.	27.1	19.7	20.9	34.3	33.3

자료: IMF, IFS, OECD 및 EIU

□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

- 2011년 이후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59.7%, D.S.R은 34.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자금(주식, 채권* 등) 유출을 유발하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119%(‘13) → 126%(‘14) → 135%(‘15) → 124%(‘16)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군부 쿠데타 진압 이후 정치적 탄압 지속

- 국가 비상사태가 3개월간 추가 연장(‘17.4월까지)* 되어 숙청 정국이 지속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추진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2016년 12월말 군인·법관·언론인·국회의원 등 약 4만 명이 체포되고, 약 13만 명이 해임되었음.

* 군부 쿠데타(‘16.7월)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16.10월, ‘17.1월 두 차례 연장

- 터키 의회는 대통령 권한 강화 및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승인(‘17.1.21), 4월 16일 국민투표(referendum)로 헌법 개정* 통과 가능성이 높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1월 에르도안이 대통령직 연임 시, 최대 2029년까지 과거 총리직 포함 총 27년간 장기 집권 가능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시리아 내전 및 잇따른 테러 발생 등으로 사회불안 심화

- 최근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암살(16.12월), 이스탄불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17.1월) 등 이슬람 극단주의(IS) 및 쿠르드족(PKK) 무장 세력의 잇따른 테러발생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태임.

* 군부 쿠데타 이후 경찰관 2만여 명이 체포 또는 해임되어 치안상황 악화

- 터키 정부의 동남부 지역 쿠르드 분리주의 반군(PKK) 제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리아 및 이라크 내 이슬람 극단주의(IS) 세력과의 교전, 터키군 핵심 인력의 감소* 등으로 악화된 안보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움.

* 숙청 정국으로 고위급 장교 33%가 체포되거나 해임되어 군대 운영능력 저하

3. 국제관계

□ EU 가입 협상은 무기한 연장

- 2015년 12월, 유럽의 난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EU는 터키의 난민수용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공식 재개하였음.

- 그러나, 유럽의회는 군부 쿠데타 시도(16.7월) 이후 터키 정부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숙청, 과도한 언론 탄압, 사형제도 재도입 논란, 테러 방지법 관련 인권 침해 등으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의회가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에게 터키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EU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16.11월말 기준 터키는 난민 약 280만 명, 이라크 난민 등 포함시 약 350만 명 수용

-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11월 EU 가입의 대안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 경제·안보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였음.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

□ 러시아의 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

- 2015년 11월 터키 공군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한 사건으로 러시아는 대 터키 수입 제한, 양국 무비자 협정 잠정 중단 및 터키인 고용 제한 등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 러시아가 2016년 하반기부터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어 터키의 주요 수입원인 농산물 수출, 관광업, 건설업 등 경제 전반에 긍정으로 작용할 예정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실적은 미미한 수준

- 2016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대 터키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55억달러, 중장기 293억 달러로 총 348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 금액은 1,430만 달러로 전체의 0.04%에 불과함.
-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이 0등급(0.3%)으로 최상위 수준임.

※ '16.12.23일 기준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 국제신용평가 3사는 군부 쿠데타 시도 이후 숙청 정국 지속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투자심리 악화, 관광산업 부진 등으로 2016~17년 중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함.
- OECD는 2008년 터키의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OECD 국가 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4등급으로 결정되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6. 3.)	C1	(2015. 2.)
OECD	4등급	(2017. 1.)	4등급	(2016. 1.)
Moody's	Ba1(Stable)	(2016. 9.)	Baa3(Negative)	(2016. 7.)
Fitch	BB+	(2017. 1.)	BBB-(Negative)	(2016. 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7년 3월 8일 (북한과는 2001년 6월 27일)
-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1972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197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6년), 투자보장협정(1994년), 섬유협정(1997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1999년),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 관광협정, 상품무역협정(2013년), 사회보장협정(2015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터키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12월말 기준 152건, 21.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30위국임.

□ 교역규모 및 주요 프로젝트

- 한·터키 상품무역협정 체결 이후 대 터키 수출은 '13~'14년 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5년 이후 터키의 경제위축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터키 교역규모는 61억 달러로 30위, 수출 규모는 54억 달러로 20위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액정 디바이스,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제품, 건설장비, 철강관 등임.
- 한편, 터키 내 주요 프로젝트로 보스포러스 3교, 유라시아 터널이 있으며, 2017년 1월 SK건설·대림산업·Yapi Merkezi·Limak 컨소시엄이 약 3.5조원 규모 세계 최장 차나칼레 현수교(Chanakale Bridge) 공사를 수주하였음.

<표 4> 한·터키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5,658	6,665	6,249	5,385	액정 디바이스, 플라스틱 제품, 건설 장비, 철강관 등
수 입	692	655	790	738	의약품, 석유제품, 철, 아연광, 자동차 부품 등
합 계	6,350	7,320	7,039	6,123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터키는 2016년 중 러시아의 경제제재, 군부 쿠데타 시도, 잇단 테러 발생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소폭 하락한 3.0%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16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터키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불확실성 및 잇단 테러 발생 등으로 큰 폭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재정수지는 터키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법제화함에 따라 GDP의 1% 범위내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물가는 리라화 약세,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터키는 낮은 국내저축률 및 에너지 부문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형성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자금유출이 심화될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임.
- 터키 정부는 자본유출 규모를 줄이고 장기자금(FDI)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 인프라 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대통령 권한 강화 및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2017. 4. 16 예정)를 통해 확정될 경우, 국민의 반발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가속화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라화의 불안전성과 테러 위험성, 약화된 경제활동 및 정치적인 변화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위험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국민투표 이후 터키의 경제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책임조사역 문성국 (☎02-6255-5720)

E-mail: sgmoon@koreaexim.go.kr